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오이타현 지사 코멘트

오늘 정부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의거한 ‘긴급사태선언’이 발령되어 후쿠오카현을 포함하는 7곳의 도부현이 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온 나라가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오이타현에서도 현민 여러분의 목숨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현내 감염자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며 계속해서 감염확대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또 오늘 정부의 긴급경제대책이 각의(국무회의) 결정되었습니다. 전례없는 사업 규모인 108 조엔에 미치는 금액으로 현에서도 2020년 보정 예산 편성을 포함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